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네티브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돌아온 거포’ 이승엽 연일 홈런포 작렬

타이밍·풀스윙 완벽 ‘부활 신호탄’

정확한 타이밍, 빼어난 노립수에 완벽한 풀스윙까지.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주포 이승엽(31)이 부활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24일 후반기 시작과 함께 시즌 두 번째 2경기 연속 대포를 신고하며 이를 동안 홈런 3방, 7타점을 올린 이승엽이 스윙을 제대로 돌리기 시작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토포’이 26일 인터넷판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전날 18호 대포를 작렬시킨 이승엽은 “후반기 첫 2경기에서는 개막전 이후 처음으로 풀스윙을 할 수 있었다. 컨디션과 기분 모두 최고”라고 말했다.

이승엽은 시즌 초반부터 “왼쪽 어깨가 완전히 돌아 풀스윙을 할 수 없다. 스윙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홈런왕을 향해 도전해 보겠다”는 말을 했을 정도였다. 그런 이승엽이 시즌 개막 후 4개월 만에 호쾌한 스윙을 되찾은 것이다.

이승엽은 전날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135m짜리 중대형 3점 아치를 그렸다. 복판에 몰린 슬라이더

추 “컨디션·기분 최고”

2군서 타격 폼 교정 주요

를 놓치지 않고 완벽히 걸어 올랐다.

24일 커브와 직구를 퍼올려 가운데 펜스와 좌중간 펜스 쪽으로 타구를 날려 보낸 이승엽의 스윙을 보면 풀스윙 궤적이 정상 궤도에 올라왔음을 알 수 있다.

홈런을 때린 세 구종 중 정중앙에 들어온 슬라이더를 제외하곤 커브와 직구 모두 바깥쪽 낮게 형성된 것이었다.

시즌 개막과 함께 왼쪽 어깨 통증, 왼손 엄지 관절염에 지난해 수술한 왼쪽 무릎까지 통증이 겹쳤던 이승엽으로서는 그 코스에 형성된 볼을 완벽히 퍼올릴 수 없었다.

공을 끝까지 바라보며 자세를 최대한 낮은 상태에

서 걸어 올라가 했지만 무릎에 무리가 갔고 왼쪽 어깨 받쳐주지 못하면서 범타로 끝나기 일쑤였다.

그러나 2군에서 2주간 엄지 통증을 가라 앉히고 타격 자세를 가다듬은 이승엽은 타격 타이밍을 제대로 잡고 임팩트 순간 풀스윙으로 타구를 띄우면서 대형 포물선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좌우중간 펜스가 짧은 도요돔에서는 상체 파워가 월등한 이승엽이 ‘푹’ 건드리는 타격으로도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었다.

공을 끝까지 밀어주는 유연한 플로스루가 가능했기에 홈런포도 연걸 뚫은 풀스윙이 아니어서 화끈한 맛은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풀스윙을 할 수 있어 코스와 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자신있는 타격을 할 수 있게 됐다.

도요돔 우측 상단에 자리 잡은 대형 광고판을 때리는 비거리 140m 이상 짜리 대형 홈런을 다시 구경하게 될 날도 머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빛바랜 이병규 솔로포

팀은 한신에 2-3 패...이승엽 4타수 1안타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즈)가 홈구장 나고야 돔에서 첫 대포를 발사했고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은 귀중한 순간 안타를 때려내며 팀 승리에 디딤돌을 놓았다.

이병규는 26일 나고야 돔에서 계속된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와 홈경기에서 중견수 겸 7번 타자로 선발 출장, 0-0이던 6회 선두 타자로 나온 두 번째 타석에서 한신 우완 선발 투수 라이언 보겔송의 몸쪽 높은 직구(140km)를 잡아 당겨 우측 펜스를 살짝 넘어가는 비거리 105m짜리 선제 솔로포를 터뜨렸다.

시즌 4호 홈런으로 5월26일 도요코자와 구월돔에서 벌어진 세이부 라이온즈전에서 2점 아치를 그린 이후 61일 만에 터졌다. 시즌 타점은 23개째.

주니치 유니폼을 입은 후 첫 나고야 돔 홈런이었다. 그는 좌우 펜스가 짧은 히로시마 시민구장에서 2개, 구월돔에서 1개를 기록했다.

후반기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한 이병규는 1-3으로 뒤진 8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와 한신의 강속구 투수 구보타 도모유키의 몸쪽 낮은 슬라이더를 잡아 당겨 우월 2루타로 출루했다. 그는 후속 다니시게 모토노부의 안타 때 3루에 도달한 뒤 대타 다스나미 가즈요시의 좌전 안타 때 홈을 밟았다. 이병규는 3회와 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각각 중견수 뜬공과 좌익수 파울플레이에 그쳤다. 4타수2안타를 때린 이병규는 시즌 타율을 0.249로 약간 끌어 올렸다. 주니치는 한신에 2-3으로 역전패했다.

한편 이승엽은 도요돔에서 벌어진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홈경기에서 4타수1안타로 경기를 마쳤다.

2회 좌익수 뜬공에 그친 이승엽은 1-0으로 앞선 4회 1사 1,3루에서는 잘 맞는 타구가 2루 정면으로 가는 바람에 병살타로 아웃됐다. 그러나 2-2이던 6회 2사 1루에서는 상대의 시프트 수비를 뚫고 1,2루간을 빠져 나가는 우전 안타로 1,3루 찬스를 만들었다.

3경기 연속 안타였고 요미우리는 이 찬스에서 아베 신노스케, 데이먼 홈런스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뽑아 4-2로 승리했다. 요미우리는 주니치를 2위로 밀어내고 다시 센트럴리그 선두로 복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 대도 안 맞고 이기겠다”

최홍만, 내달 쿠리지와 K-1 대결 승리 자신



‘테크노 콜리엇’ 최홍만(27·사진)이 내달 5일 홍콩에서 열린 K-1 아시아 월드 그랑프리 대회에서 팔씨름 세계챔피언 출신 개리 쿠리지(41·트리니다드 토바고)와 대결을 앞두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일본 스포츠 일간 ‘산케이스포츠’는 26일 최홍만이 일본 오사카 시내에서 공개 훈련을 하면서 “한 대도 맞지 않겠다. 또 부상이 없는 체로 월드그랑프리 개막전(9월29일·서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28일 미국 마이크 말론(35)을 2회 KO로 이긴 뒤 네 달여 만에 링 위에 다시 오르게 된 최홍만은 이번 대회 변이경기에 출전한 뒤 9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K-1 월드그랑프리 16강 토너먼트 개막전에 도전할 예정이다.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지난 달 K-1 미국 대회에 결장했던 최홍만은 이날 공개 훈련에서는 오른손으로 가드를 하고 왼손으로 짚을 날리는 연습을 반복했다. 그는 이 같은 타격으로 스파링 파트너의 턱을 가격해 다운을 빼앗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랑이, 거인포에 ‘야옹’

KIA, 롯데에 5홈런 허용 1-8 패...2연패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한여름 잠시 포효하던 ‘호랑이 군단’이 풀려 라이벌 ‘부산 갈매기’에게 맥없이 무너졌다. 그것도 야심차게 내놓은 ‘특급 용병’ 스코비가 주저앉았다.

김상훈의 시즌 첫 홈런포도 역풍 맞은 KIA호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KIA 선발 스코비는 26일 광주구장에서 계속된 2007 프로야구 롯데전에서 1회에 홈런 2개로 3실점 하는 등 5이닝동안 5홈런 포함 9안타, 2볼넷을 내주고 6실점의 부진속에 패전의 멍에를 썼다. 시즌 6패(4승)째.

스코비는 이날 한 경기에서 5개의 홈런을 허용하며 이 부문에서 불명예 스타인 역대 타이 기록도 세웠다. KIA는 1-8로 대패했고, 7위 롯데와 5.5게임차로 벌어지며 탈락의 공포를 맛보았다.

선발 스코비는 출발부터 극심하게 흔들렸다. 스코비는 1회 상대 첫 타자 정수근에게 초구로 138km 직구를 던졌으나 그대로 우측 담장을 넘어갔고, 1사 후 이인규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다음타자 이대호에게 우월 투런포를 허용했다.

정수근의 홈런은 올 시즌 첫 1회초 1번타자 초구 홈런으로 기록했고, 이대호는 개인통산 100호 홈런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역대 48번째.

스코비는 2회에도 선두타자 김민호에게 볼카운트 2-3에서 134km 슬라이더를 던지다 1점 홈런을, 4회에는 정수근에게 또 우월 1점 홈런을 내줬다. 스코비는 5회에도 2사 후 박현승에게 좌월 1점포를 헌납한 뒤 동료 윤형진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KIA는 5회 공격에서 김상훈이 상대 선발 송승준의 142km짜리 직구를 잡아당겨 시즌 1호 홈런을 신고했으나, 더 이상 만회점을 뽑지 못했다.

메이저리그 4번타자 최희섭은 이날 타석에 2번 들어서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고, 7회에 이재주도 교체됐다.

한편 KIA는 27일부터 29일까지 광주구장에서 삼성과 3연전을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형택 2주 연속 8강 진출

ATP 인디애나폴리스 챔피언십

이형택(세계랭킹 38위·삼성증권)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에서 2주 연속 8강에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6번 시드의 이형택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 테니스 센터에서 벌어진 총상금 52만5천달러가 걸린 ATP 투어 인디애나폴리스 테니스 챔피언십 16강전에서 미국의 폴 골드스틴(96위)을 1시간 6분 만에 2-0(6-3 6-3)으로 쉽게 꺾고 준준결승에 올랐다.

지난주 컨트리 와이드클래식에서 시즌 첫 4강에 오르며 탄력을 받기 시작한 이형택은 2주 연속 하드 코र्ट에서 열린 투어대회에서 8강에 진출, 8월28일부터 뉴욕 플러싱 빌리진 킹 내셔널테니스 센터에서 벌어질 마지막 US오픈에서 선전 가능성을 높였다.

이형택은 톱시드이자 ‘강서버’로 유명한 미국의 앤디 로딕(5위)과 4강 길목에서 만났다. 2005년 펠페스 투어 대회 이후 로딕과 2년 만에 격돌하는 이형택은 그와 역대 9번 맞붙어 1승8패로 절대 열세에 있다.

그는 생애 첫 ATP 우승컵을 안았던 2003년 호주 시드니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대회 16강에서 로딕을 2-0(7-6(7-5) 7-5)으로 딱 한차례 눌러냈다.

이날 승부는 로딕의 총알 같은 파워 서브를 이형택이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한편 이형택은 8강 진출로 삼금 1만4천800달러와 투어 포인트 40점을 확보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톱 10을 향하여

위성미가 26일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마스터스 골프장에서 열린 에비앙마스터스 3번을 그린에서 퍼팅라인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